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2019 희망TV SBS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다 5월 24일(금), 25일(토) 생방송

23년간 전 세계 50여 개국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온 SBS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 <희망TV SBS>, 올해는 SBS의 간판 최기환, 박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5월 24일(금), 5월 25일(토) 양일간 14시간 20분 동안 생방송된다.



개그맨 노우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조원희 아프리카 가다!

인연이라곤 전혀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아프리카 가나를 찾았다. 제2의 호날두를 꿈꾸는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다. 축구공도 축구화도 없지만 공할 때가 가장 좋다는 킹스레이가 바로 그 주인공! 아픈 할머니와 여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열한 살 가장이라 축구할 시간도 부족하다는데... 노우진과 조원희는 아이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K-리그로 영입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라이온 킹 프로젝트>에서 소년의 엄청난 실력이 공개된다.



<희망TV SBS> 아프리카 현지 통신원, 방송에 적극 참여

정애리, 박미선, 김인권, 장희진, 남보라에게 아주 특별한 영상 편지가 도착했다. <희망TV SBS>를 통해 만났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려준 건데, 이 영상은 모두 아프리카 현지 통신원이 직접 취재했다. <희망TV SBS>와 함께하는 5개 NGO의 현지 직원으로 구성된 <희망TV SBS> 통신원의 맹활약 덕에 아이들의 변화된 현재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가수 소유의 역대급 콜라보 최초 공개

가수 소유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위치한 카탕가 빈민촌의 보육원을 찾아, 부모로부터 버려졌거나 가난 때문에 맡겨진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었다. 소유는 절망적인 아이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듀엣을 제안했는데, 역대급 콜라보 무대는 <희망TV SBS>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배우 윤유선, '녹화 현장 눈물바다로...'

배우 윤유선은 극심한 기근과 사투를 벌이는 메마른 땅, 우간다를 방문했다. 기근으로 인한 가난과 질병, 그로 인해 죽음 앞에 다다른 아이와 엄마들의 상처를 보듬어준 윤유선 가슴 아픈 엄마와 아이들의 이야기에 녹화 현장 눈물바다가 됐다.



배우 김사랑 목소리 재능 기부로 <희망TV SBS>를 빛내 배우 김사랑이 내레이션 하는 국내 다큐멘터리 <오늘을 기억해>는 혈관성 치매로 매일 기억을 잃어가는 아빠와 그런 아빠를 위해 기계체조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열두 살 딸의 이야기다. 부녀의 애틋한 사연은 <희망TV SBS> 4부에서 공개된다.



역주행 신화 N.Flying <2019 희망TV SBS> 통해 신곡 공개

상반기 역주행 신화 'N.Flying'이 길 잃은 아이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노래, '아이 안심 캠페인송'이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한국의 리키 마틴에서 딸 바보로 돌아온 가수 홍경민, 연예계 대표 육아맘 개그우먼 정경미,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과 함께하는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은 2019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육아아빠들의 아이와 노는 비법을 전격 공개한다. '노는 아빠'들 중 최고의 노는 아빠를 찾는 SNS 투표는 5월 20일(월) 시작해 5월 25일(토) 오전 10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꿈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다 '잔지바르 미디어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프로젝트 이외에도 SBS 방송 제작진의 재능 기부 참여로 더욱 뜻깊은 잔지바르 미디어센터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작기,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아침연속극 수상한장모 김혜선 열연으로 기대감 UP ↑



아침연속극 <수상한 장모>(극본: 김인강, 연출: 이정훈)가 5월 20일(월)부터 방송되고 있다.

<수상한 장모>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은석과 제니, 흠잡을 데 없는 일등사윗감인 은석을 결사 항전으로 막아서는 수상한 장모 수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장모님이 원수가 되어버린 은석의 사연과 제니의 성장 과정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비밀을 파헤치는 드라마로, 방송이 거듭될수록 흥미를 더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인공 제니 역은 신다은이 맡아 명량 쾌활하고 심플한 성격의 여주인공을 제 옷을 입은 듯 연기하고 있다. 제니는 탁월한 감각과 능력으로 섬유 예술가이자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날린다. 엄마 수진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수진이 점찍어 놓은 예비 사위 만수만큼은 반아들일 수 없다. 제니는 첫눈에 반한 은석으로 인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고,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충격적인 비밀에 서서히 다가간다.

일등신랑감 오은석 역은 박진우가 맡았다. 은석은 J그룹 오다진 회장(고인범 분)의 친손주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후계자 자리를 놓고 고모의 견제가 심해지자 유학을 떠났다가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다.

수상한 장모 왕수진 역은 김혜선이 맡아, 역할에 충분히 녹아 든 연기력으로 100% 완벽한 싱크로율을 선보이고 있다. 수진은 겉으로는 딸 제니와 둘도 없는 모녀 사이지만 제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엄마로, 수상한 과거를 지닌 인물이다. 제니가 자신이 데릴사위로 점찍어 놓은 안만수를 마다하고 은석을 택하자 은석을 떼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양정아는 은석의 고모이자 J그룹의 전무 오애리 역을 맡았다. 오애리는 셀럽의 삶을 즐기는 인물로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은석과 대립하며 극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국계 미국인 호텔 사업가 안만수 역은 손우혁이 맡았다. 안만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호텔 재벌가로 제니를 짝사랑하는 순애보를 연기한다.

한편, 재벌집 며느리에서 한순간에 이혼녀가 되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최송아 역은 안연홍이 맡았다. 송아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동주(김정현 분), 마음이(이한서 분) 부녀와 각별한 정을 쌓아간다.

송아의 엄마로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살아가는 지화자 역은 윤복인이 연기한다.

그밖에 황명환, 한소현, 고다연, 송영재, 양영조, 유일한, 수빈 등 개성만점의 캐릭터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열연을 펼치고 있다.

<강남스캔들> 후속 <수상한 장모>는 SBS 아침연속극 불패 신화를 이어간다.

파워FM 17라운드 연속 청취율 1위! 대한민국 라디오 채널 통틀어 절대 우위



파워FM이 17라운드 연속 청취율 1위를 지키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한국리서치의 2019 2라운드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워FM은 점유청취율 24.5%를 기록, 1위를 지켰다. 2위는 TBS 교통방송(15.8%), 3위 MBC AM(14.1%), 4위 CBS 음악 FM(13.3%), 5위 KBS 2FM(10.6%) 순이다.

파워FM은 13-59 타겟 채널 점유청취율 역시 27.6%로 1위를 지켰다.

또한 파워FM의 <두시탈출 컬투쇼>를 비롯해 <김영철의 파워FM>, <붐붐파워>까지 3개의 프로그램이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순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조정식의 편편투데이>, <최화정의 파워타임>, <박소현의 러브게임>, <배성재의 텐> 등 파워FM 전체 프로그램 13개

중 6개가 동시간대 1위를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철의 파워FM>과 <박소현의 러브게임>의 청취율이 대폭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는 4월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1.8%p다.

미디어기술연구소 2019 방통위 방송대상 기술상 수상



미디어기술연구소가 2019년 방통위 방송대상 방송기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지난 5월 13일 거행된 2019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미디어기술연구소는 “딥러닝 기반 핫클립 생성 시스템(이하 미디어 큐레이터)”을 자체 연구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딥러닝을 실제 방송 서비스에 적용하고 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AI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였다. 미디어 큐레이터는 AI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으로서, 방송사가 기존에 생성한 핫클립과 방송콘텐츠와의 관계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학습하게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한 핫클립을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지난 3월 이 시스템의 시연을 사내에서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야인시대> 구작 방송분의 핫클립을 정확하게 검출해내고, 이를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유튜브에 배포하는 시연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2017년에도 세계 최초의 ATSC 3.0 UHD TV 송출 시스템 개발로 본상을 수상한 바 있어, 방송기술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SBS가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한편, 특별공로상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MC인 임성훈, 박소현이 받았다. 두 사람은 1998년 5월 1회부터 2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성실함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단 한 회도 빠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았다.

SBS M&C IN 플레이엑스포, 미디어마케팅 상담 진행



SBS M&C는 국내외 직거래 광고주 발굴을 위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PlayX4(플레이엑스포)에 B2B부스를 열고 미디어마케팅 상담을 진행했다. PlayX4(플레이엑스포)는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의 체험형 게임 전시회로, 500여 개의 참가업체가 B2B 부스를 운영하면서 제품 홍보에 집중하였다.

SBS M&C 부스에도 많은 게임 광고주들이 방문하여 TV, 라디오 및 디지털 광고 마케팅에 큰 관심을 보였다. M&C는 총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컨택 포인트를 교환하면서 국내외 중소 퍼블리셔들이 SBS M&C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담당자는 “SBS M&C의 다양한 미디어 캠페인 상품을 소개하여 광고 효과(ROI)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면서 국내외 중소 퍼블리셔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신규 광고주들을 발굴하고 매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타는청춘 콘서트 수익금 일천만 원 기부



5월 22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불타는 청춘 콘서트> 수익금 기부 전달식이 열렸다.

<불타는 청춘 콘서트> 제작진과 출연 연예인들은 지난 3월 30일 올림픽공원에서 성황리에 끝난 콘서트 수익금을 좋은 곳에 쓰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 구로희망복지재단에 일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 전달식에는 신호범, 김도균, 이재영, 임재욱, 장호일, 강문영, 박선영, 구본승, 권민중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구로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인법인으로, SBS와 관내 취약계층 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9 희망TV SBS 경북 봉화군에 일곱 번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문 열어



5월 14일(화),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희망TV SBS>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완공한 '춘양봉별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희망TV SBS>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마을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자는 취지로 2013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저출생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사회공헌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춘양봉별 지역아동센터'를 짓기 위해 봉화군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희망TV SBS, 보건복지부, 대한건축사협회, 월드비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2년여간의 공사 끝에 봉화군 춘양면에 일곱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춘양봉별 지역아동센터는 설계 과정과 명칭 공모 등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샤워실, 조리실 등을 갖춰 아동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 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희망TV SBS>는 2019년에도 충북 옥천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함안군 등 세 곳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모금활동과 설계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9
Google
Cloud Next
특별보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파트너, 구글

- 미디어기술연구소 유성 차장



GCN(Google Cloud Next)은 구글이 자사의 신규 기술을 홍보하고 유관 기관과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매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클럽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GCN 행사에 참여했다. 구글과의 업무 협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GCN 행사에서 발표된 신규 클라우드 기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글은 기존 AWS(Amazon Web Services, 아마존)에 연동

하여 구글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기술, 기 구축된 서버들과 구글 플랫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본인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클라우드에 적용한 기술을 핵심 신규 기술로 발표하였다. 구글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과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기술연구소는 구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SBS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자동 자막 생성, 자동 번역 기술 적용 방안을 지속적

으로 연구해 왔다. 이미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이러한 기술들을 SAM(SNS Asset Management System)에 적용하여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참고로,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5/1~5/7 사이에 애니멀봐와 Kitter Klub 유튜브 채널의 2,200여 개 클립에서 신규 적용한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13개 국어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 유입된 조회수가 25.8만 회에 이른다. 또한 동일 기간에 모비딕 유튜브 채널의 20여 개 클립에서 신규 적용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14개 국어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 유입된 조회수도 2.7만 회에 이른다.(SBS NOW, 우와한 비디오, SBS KPOPPLAY 등 전사 채널 확대 중) 하지만, 수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한국어 음성인식률 향상과 번역 시스템의 품질 향상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왔고, 이번 출장을 통해 구글의 음성/번역 기술 분야 리더를 각각 만나 양사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STT 서비스 분야에서는 SBS에서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줄 경우, 2020년까지 한국어 인식률을 대폭 향상해 주겠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국어 번역 분야에서는 품질 문제를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받아서 향후 SBS만의 커스텀 번역기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구글의 향후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구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앞으로 SBS의 클럽 유통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2019년
제1회 SBS 타운홀 미팅 개최



SBS의 모든 팀장 및 담당급 보직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2019년 제1회 'SBS 타운홀 미팅'이 5월 20일(월)~22일(수) 3일간 3개 차수에 걸쳐 개최되었다.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 또는 선거 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에서 따온 이름으로, 이번 미팅에서는 1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연간 전망 및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디지털사업 역량 강화 등 회사의 수익 정상화를 위한 현안과 주 52시간 본격 적용 체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SBS 타운홀 미팅'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직원과 중간관리자, 경영진 사이의 능동적이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스브스뉴스 <돈워리스쿨>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스브스뉴스 <돈워리스쿨> '사회에선 가르쳐 주지 않는 경제 수업'(연출: 하현종)이 5월 22일(수) 방통심의위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뉴미디어 부문 상을 수상한 <돈워리스쿨> '사회에선 가르쳐 주지 않는 경제 수업'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생활꿀팁 정보를 토크 형식으로 전달하는 모바일 콘텐츠 시리즈로, 스튜디오 토크 포맷의 TV형 교양 제작물의 문법과 빠른 호흡, 시인성 높은 자막, 스피디한 구성 등 모바일 문법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모바일 롱폼 콘텐츠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방통심의위는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통해 콘텐츠 파급력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민성 부장,
안영길 차장 안식년



뉴미디어뉴스부 조민성 부장, 라디오기술팀 안영길 차장이 6월 안식년을 맞이한다. 조민성 부장은 1991년 6월 입사해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종 등으로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상품권 발행업체 정관계 로비 단독기사 등으로 SBS 보도국의 위상을 높였다. 조 부장은 2008년 보도국 문화부장을 역임한 뒤 보도제작부 등에서 활약하며 후배 기자들의 귀감이 되어왔다. 안영길 차장은 창사와 함께 라디오기술팀에서 녹음제작, 중계기술, 주조정실 기술감독을 두루 거치면서 라디오방송의 핵심 재원으로 28년을 일했다. 여러 스포츠 경기장의 라디오 중계 시설을 구축하여 SBS 라디오가 고품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주조정실 기술감독으로서 안정적인 방송 송출에 기여했다. 현재 중장비 자격증 취득 및 목공예를 하며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